

로마서 말씀 세미나를 마치며

복음,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는 삶

지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진행된 김현주 목사님의 로마서 말씀 세미나는, 평소 로마서를 막연하고 어렵게만 느꼈던 저에게 '복음'에 따라 사는 삶의 길을 잃지않고 따라 갈 수 있는 안내서가 되어주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핵심 주제인 '복음'과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는 삶"이라는 목표는 단순히 성경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제가 이 땅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김현주 목사님께서서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핵심 구절로 짚어주시며,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첫날, 출애굽기의 '왕' 같은 제사장'과 마태복음의 '킹덤 빌더(Kingdom Builder)'를 연결하여 설명해 주어 익숙했던 출애굽기에 적용하며 로마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전한 복음이 결국 우리에게 잃어버린 통치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은 다른 것보다 '나의 복음'이 무엇인지 묵상하게 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매 시간 반복해서 짚어주신 '로마서 구조도'였습니다. 구조도를 통해 로마서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니,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입체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첫째, '무엇을 믿을 것인가(1~4장)'를 통해 복음과 칭의를 설명하고, 둘째, '어떻게 믿을 것인가(5~11장)'를 통해 성화와 영광으로 가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12~16장)'를 통해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안내합니다. 특히 8장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육성을 이기는 삶을 지나, 12장 이후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보며, 복음은 관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체적인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세미나를 통해 가장 가슴 깊이 새긴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로마서가 보여주는 삶의 원칙은 결국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1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복음을 입은 성도가 세상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비판이나 정죄가 아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응답하는 성도의 삶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임을 다시한번 깨달았습니다.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교회를 섬기고 세상 속에서 선으로 덕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제가 살아가야 할 성도의 모습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세미나 기간 내내 간절한 마음으로 자리를 지키시며 방문해주신 분들의 모습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감동과 함께 오고가는 따뜻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했고, 음을 알리고,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3일간의 짧은 시간동안 복음을 제대로 묵상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 감사하며 로마서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이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신 김현주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